

IFES

뉴스레터

2026년 5/6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38호(5/6월)
목차**

연구활동

1. 학술활동	03
2. 교수진 연구활동	09
3. 한반도 정세분석	13
4. IFES 브리프 / 포럼	15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0
2. 언론 속의 IFES	22
3. IFES 도서관	25
4. 예정사항	26
5. 안내사항	27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한반도 정세분석

IFES 브리프 / 포럼



1. 학술활동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진학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4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신진학자 네트워크를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 통일 및 국제 분야의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진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간담회 참석한 연구소 간부 및 신진학자들 -

본 간담회에는 극동문제연구소의 이관세 소장과 임을출 연구실장, 이형중 실장을 비롯하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진목 박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미정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혜원 박사 등 10명의 신진학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자 주요 연구 분야와 관심 주제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 협업의 접점을 모색하는 한편, 연구소가 마련한 신진학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본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공동연구 과제 수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신진학자들이 협업하고 안정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향후에도 북한·통일 및 국제관계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1. 학술활동

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중 신진학자 학술토론회 개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상하이외국어대학교 한반도 및 아태전략 연구센터 연구진과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관세 소장, 오현주 연구위원(이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왕싱싱 소장, 리우위 판신주 진커 왕샤오동 자오치엔 리원철 왕푸린 리우지아치 박사과정(이상 상하이외국어대학교 한반도 및 아태전략 연구센터), 김림삼 박사과정, 육가 방문학생(이상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만봉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등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의 신진학자들은 한중 반도체 산업 및 첨단기술, 이재명 정부의 대만전략, 북한의 대중국 인식, 한국의 북극항로사업, 중국의 일대일로 개념, 중국의 다변주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회 이후 상하이외국어대학교 한반도 및 아태전략 연구센터 신진학자들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 북한자료실을 방문하여, 소장된 북한 원자료를 살펴보았다.

연구소는 향후 한 중 간 학술교류 심화를 위해 중국 학술기관들과 신진학자 학술토론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19차 삼청포럼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6일(수) 오후 7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교훈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제19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발발한 미-이란 전쟁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와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의 취약성을 점검하여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안보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주 교수는 현대 분쟁이 ‘연결성이 곧 취약성’이 되는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식량 가격의 연동 전이”를 경고하며, “미국이 AI 경찰 자산을 활용해 전개하는 역 봉쇄(Counter-blockade) 전략은 상호의존의 역설을 보여주는 핵심 사례”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전쟁이 첨단 무기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가성비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과 같은 디지털 초크포인트의 취약성이 물리적 경로만큼이나 위험한 요소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이 교수는 “이번 위기가 에너지 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디지털, 군산복합체 이슈가 얽힌 ‘다면 게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100%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취약성을 줄여나가되,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 제조 능력(미드스트림)을 키워 유사시 타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필수 불가결성(Strategic Indispens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단기적인 전략 비축유 방출과 함께 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제시하며, 향후 미국산 에너지 도입 등을 통해 중동 의존도를 낮출 것을 언급했다. 또한 한-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네덜란드·호주 등 핵심 중견국(Middle Power)과의 양자적 공급망 연대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해저 케이블 차단에 대비해 미국이 추진 중인 위성 기반 6G 통신 시스템 등 우주 경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하이테크 전쟁과 가성비 전쟁 양상에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산복합체 재편 및 방산 능력 확충을 제안했다.



1. 학술활동

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공동 학술회의 (2026. 5. 2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월 28일(목) 09:00-16:30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3층 회의실에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이관세 소장, 이형중 교수, 오현주 연구위원(이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류리신 원장, 위다용 부원장, 왕후이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진메이화 동북아연구센터 비서장(이상 길림성사회과학원), 한센동 중국정법대학교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 바덴쥬·장후이지 동북아연구센터 부주임(이상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귀루이 길림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주임, 궁젠쩌 북화대학교 역사문화대학 원장, 만하이핑 요동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 장샤오강 장춘사범대학교 역사문화대학 초빙교수, 피아오동신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주임·자오리신 국제정치학과 학과주임(이상 연변대학교), 쉘핑 동북사범대학교 교육학부 부교수가 참석하였다.

1세션에서는 왕후이 소장의 사회로 한센동 교수, 이관세 소장, 바덴쥬 교수, 궁젠쩌 교수가 변화하는 한반도 지역 정세 속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남북관계의 현황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아시아 차원에서 전개되는 복합적 지정학 충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세션에서는 조성렬 교수의 사회로 이형중 교수, 만하이핑 교수, 왕후이 소장, 장샤오강 교수가 한중 문화교류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경로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한중 협력의 대외적 조건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3세션에서는 바덴권 교수의 사회로 박동훈 교수, 오현주 연구위원, 장후이지 교수, 진메이화 비서장이 북한의 국가전략 조정과 남북관계의 향방을 주요 정치 행사와 정책 변화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북중 경제관계의 발전 가능성, 북한 경제정책 및 대외협력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모색할 수 있는 협력 과제를 논의하였다.

4세션에서는 이형종 교수의 사회로 자오리신 교수, 조성렬 교수, 귀루이 교수, 쉘핑 부교수가 북한 핵무력의 헌법화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직면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란전쟁 등 역외 안보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였다.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2024년 12월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개최되었다. 양측은 향후 매년 1회 상호 기관 방문 형식으로 공동학술회의를 교차 개최하고,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의 일정 >

시간	구분	주제
9:00~9:20 (20)	개회식	사회: 위다용(길림성사회과학원 부원장) 축사: 류리신(길림성사회과학원 원장)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9:20~9:30 (10)		기념사진

1. 학술활동

시간	구분	주제
9:30~10:40 (70)	제1세션	<p>사회: 왕후이 (길림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소장, 연구원)</p> <p>발표 1: 한반도 지역 정세와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과제 한세동 (중국정법대 조선반도연구소 주임, 교수)</p> <p>발표 2: 남북관계 현황과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p> <p>발표 3: 동아시아 4중 지정학적 충돌: 연동 메커니즘과 전략적 대응 바덴첸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동북아연구소 부주임, 교수)</p> <p>평의&토론: 궁젠쨌 (북화대학교 역사문화대학 원장, 교수)</p>
10:40~10:50 (10)	휴식	
10:50~12:00 (70)	제2세션	<p>사회: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전 주오사카 총영사)</p> <p>발표 1: 한중 문화교류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홍보실장, 교수)</p> <p>발표 2: 한중 협력 기반 강화와 '한중 +X' 협력 경로 확대 만하이핑 (요동대 조선반도연구소 주임, 교수)</p> <p>발표 3: 트럼프 2.0 행정부의 대북 정책 고려와 전망 왕후이 (길림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소장)</p> <p>평의&토론: 장샤오강 (장춘사범대학교 역사문화대학 초빙교수)</p>
12:00~13:30 (90)	중식	
13:30~14:40 (70)	제3세션	<p>사회: 바덴첸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동북아연구소 부주임, 교수)</p> <p>발표 1: 조선 '양회'를 배경으로 한 국가 전략 조정과 남북관계 향방 박동훈 (연변대 조선한국연구소 부주임, 교수)</p> <p>발표 2: 북중 경제관계의 발전 전망과 한중 협력의 과제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p> <p>발표 3: 노동당 구대후 조선 경제정책과 대외협력 발전 추세 장후이지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동북아연구소 부주임, 소장)</p> <p>평의&토론: 김미화 (길림성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비서장, 연구원)</p>
14:40~14:55 (15)	휴식	
14:55~16:10 (75)	제4세션	<p>사회: 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홍보실장, 교수)</p> <p>발표 1: 조선 핵무력 헌법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딜레마 자오리신 (연변대 인문사회과학학원 국제정치학과 학과주임, 교수)</p> <p>발표 2: 이란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성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전 총영사)</p> <p>발표 3: 동북아 질서 재편 속에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 발전의 선택 귀루이 (길림대 행정대학 학술위원회 주임위원, 교수)</p> <p>평의&토론: 쉬핑 (동북사범대학교 교육학부 부교수)</p>
16:30~18:00	석식	

2.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K-평화통일연대 주최, 제6차 한반도 평화심포지움 발표
 - 일자/장소: 2026. 4. 2.(목) / 국회도서관 소강당
 - 주제: 북한 9차 당대회 분석과 실용적 평화공존전략
- 2) 2026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연합학술대회 토론
 - 일자/장소: 2026. 5. 22.(금) / 명지대학교 종합관
 - 주제: 신뢰와 평판으로 작동하는 도시 간 비공식 송금 시스템의 비교 분석

김상범 교수

- 1) 조선로동당 제9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평가: 법제화, 정책화의 함의와 전망 토론
 - 일자/장소: 2026. 4. 21.(화)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주제: 제9차 당 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의 평가와 전망 토론
- 2) 통일연구원 개원 35주년 학술회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통일연구 토론
 - 일자/장소: 2026. 4. 8.(수) / 통일연구원 PPS홀
 - 주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추진방향

조진구 교수

- 1)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연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문제와 김정은 시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 제29권 1호)
 - 일자: 2026. 4. 30.(화)
 - 제목: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교수진 연구활동

< 북한의 통일정책 변화 연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문제와 김정은 시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중심으로 >

1991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자 국가주석인 김일성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제안하면서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후대들에게 맡기자고 했다.

이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23년 12월 말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그의 손자이자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정은 당 총비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북한의 통일노선과 다른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추구해 온 한국과는 통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서로 다른 남북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 글에서는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문제를 북한 통일정책의 문맥에서 살펴본 뒤 그것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아산재단 연례 학술회의

- 일자: 2026. 4. 7.(수) ~ 8.(목)

- 내용: “Modernizing the alliance”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 참석자들에게 미국의 동맹 경시 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하는 지를 설명

2) 아산 정책 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6. 4. 23.(목) / 아산정책연구원

- 내용: 미국 아태 국무 차관보를 역임한 Evans Revere 가 미국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발제의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미국의 동맹 경시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강화해야 하는 지를 강조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2026 한반도 미래비전 포럼

- 일자: 2026. 4. 30.(목)

- 내용: 국제정세 및 한반도 문제 관련, 라운드테이블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 1) 미국 뉴욕타임스 인터뷰
 - Kim Jong-un's Daughter Drives a Tank, and Succession Talk Accelerates (2026년 4월 7일, 화)
- 2) 로이터 인터뷰
 - North Korea unveils cluster-bomb missile, electronic warfare capability (2026년 4월 9일, 목)
 - North Korea tests cruise and anti-ship missiles from naval destroyer (2026년 4월 14일, 화)
- 3) AFP 인터뷰
 - North Korea's Kim oversees navy cruise missile test (2026년 4월 14일, 화)
- 4) YTN 뉴스 인터뷰
 - 외무성으로 간 북 대남기구...장금철 재등장도 주목 (2026년 4월 11일, 토)
 - 8년 만의 방남...남북 대결에 공동응원 펼친다 (2026년 5월 17일, 일)
- 5) MBN 인터뷰
 - 왕이 만난 김정은 “하나의 중국’지지”...미중 회담 앞둔 노림수는? (2026년 4월 11일, 토)
 - 김정은, 주애 동행해 ‘집속탄’ 시험...축구장 18개 면적 섬 하나 날렸다 (2026년 4월 21일, 화)
- 6) KBS 뉴스 인터뷰
 - 북한,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도발...“대남 적대 불변” (2026년 4월 9일, 목)
 - 김정은 “남부 국경 요새화”...통일부 “통일 지향 ‘두 국가’” (2026년 5월 18일, 월)
- 7) SBS 뉴스 인터뷰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청와대 긴급 점검회의 (2026년 4월 19일, 일)
 - 김정은 “박격포·곡사포 강화”...포생산종합체·저격무기 공장 설립 지시 (2026년 5월 13일, 수)
- 8) MBC 뉴스 인터뷰
 - [통일전망대] 북한 청년 노력 동원...국내에서 해외로? (2026년 5월 11일, 월)
 - 북한군, 붉은광장 첫 행진...푸틴, 직접 감사 표시 (2026년 5월 12일, 화)

2. 교수진 연구활동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동아일보 기고

- 이란 전쟁이 드러낸美中 시스템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26년 4월 14일, 화)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60414/133737984/1>

권기원 초빙교수

1) 아주경제 칼럼기고

- '국방시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2026년 4월 9일, 목)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60409181018050>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과 후속 지원 대책 (2026년 5월 14일, 목)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60514153253797>

이상만 초빙교수

1) 뉴스 1 인터뷰

- 북미 중재나, 북중러 밀착이나...트럼프 만난 시진핑 속내가 정세 가른다 (2026년 5월 21일, 목)

곽길섭 초빙연구위원

1) 데일리NK 기고

- 선을 넘는 조롱: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2026년 4월 8일, 수)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dailynk.com/20260408-2/>

- 북핵 관련 단상: 설마, 과신, 탄짓? (2026년 5월 8일, 금)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dailynk.com/20260508-2/>

3. 한반도 정세분석

Assessment and Outlook on North Korea's Major Developments Between January-March 2026

2026. 4. 15. Cheol-wun Jang [Research Fellow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North Korea's Intent in Requesting Foreign Minister Wang Yi's Visit

2026. 4. 15. Sangsook Lee [Research Professor /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Revisiting the 8th Anniversary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Dissolution of "Special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Transition to "Peaceful Coexistence"

2026. 4. 27. Soohwan Hwang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 Jeju National Universit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3. 한반도 정세분석

Phase Two of the Korea-China FTA: Structure Before Speed-Eight Years of Services and Investment Talks: What Matters More Than Concluding the Talks

2026. 4. 27. Hanjin Park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A Paradigm Shift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2026. 5. 18. Kyu-duk Noh [Visiting Professor, Halla University / Former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MOFA]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Constitutional Revision in North Korea and the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2026. 5. 18. Youngchul Chung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Sogang Universit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4. IFES 브리프 및 포럼

가. IFES 브리프 (3건)

IFES 브리프(요약)

북한 경찰제도 수립에 관한 소고(小考)

2026. 4. 3. 전령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북한이 경찰제도 수립을 공식 예고하였다. 2026년 3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치안기구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회안전군을 경찰무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같은 시기 사회안전성은 국무위원회 직속에서 내각 산하로 이관되었고, 국가보위성은 국가정보국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는 북한 치안체계의 성격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0년 이후 군사적 통치기구 아래 편제되어 온 치안기구가 다시 일반 행정기관의 틀로 돌아온 것이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나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법적 형식을 정비하려는 더 넓은 흐름의 일부로 읽힌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인민경찰법」과 「인민무장경찰법」을 통해 경찰 임무와 기관 간 역할을 법률로 명확히 하면서도 당의 영도를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법에 의한 국가 운영과 당-국가 통치가 병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북한의 이번 변화를 가능하는 비교 기준이 된다. 따라서 북한 역시 유사한 경로, 즉 치안 기능을 법률로 명문화하되 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북한의 이번 변화는 제도적 외형을 정상국가 모델에 맞추어 가려는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 실질이 권력 분립과 법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지는 향후 경찰 관련 법제와 운용 관행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4. IFES 브리프 및 포럼

IFES 브리프(요약)

김정은 시대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체계화와 당 규약 명문화의 정치적 함의

2026. 5. 4.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연구센터장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제시와 전개 과정, 그리고 제9차 당 대회에서의 당 규약 명문화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노선은 2022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간부학교 연설을 통해 제시되고, 같은 해 12월 전원회의에서 공식화된 이후 2026년 제9차 당 대회에서 규약에 명문화되었다. 북한은 이를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 천명한 당 건설의 기본 지침으로 규정하였다.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은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건설을 통해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사상 건설을 중심으로 전당과 온 사회의 일색화를 추진하고, 규율과 작풍을 통해 이를 제도화한다. 이는 유일영도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이다. 당 규약 명문화는 사상과 제도의 결합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당·국가 전반에 대한 장악력을 공고화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IFES 브리프(요약)

중러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와 관리된 다극화 국제질서 도래

2026. 5. 27.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6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은 미국·서방 중심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균열과 중국·러시아 주도의 다극화 국제질서 부상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전면적 전략협력 심화와 선린우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러는 공식적으로 “비동맹, 비대결, 제3자 비거냥”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군사·경제·에너지·금융·과학기술 전반에서 사실상 준동맹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4. IFES 브리프 및 포럼

또한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기반으로 대안적 다자질서 구축과 탈달러화, 유라시아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러 전략협력 심화는 북핵 문제 국제공조 균열과 동북아 안보의 블록화·파편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공급망·에너지·북핵·유라시아 물류·글로벌 사우스 협력 등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나. IFES 포럼 (2건)

IFES 포럼

How Can Korea Make the Best Use of the NPT Review Conference?

2026. 4. 23. Ho-Young Ahn [Former Ambassador to the U.S. / Chair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IFES 포럼

The Middle East Crisis and Changing Security Dynamics in Northeast Asia: A Chinese Perspective on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2026. 5. 26. Bo An [Northeast Asia Research Center, Zhejiang Yuexiu University]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동향

- 하춘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6. 5. 1. ~ 2027. 4. 30).
현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전 경남대 인문대학장, 도서관장
- 이태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사임 (2026. 2. 1. ~2026. 5. 8.).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부임

나. 경남대 박재규 총장, 중국 산둥대 방문 - 한반도 문제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확대 합의 (2026. 4. 21.)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은 중국 산둥대학교 초청으로 2026년 4월 21일 산둥대학교 위해 캠퍼스를 방문하여 양 기관 간 학술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왼쪽부터)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구도빈 산둥대 위해캠퍼스 당서기, 장운령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이날 방문에 한국측은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중국측은 구도빈 산둥대학교 위해캠퍼스 당서기, 장운령 산둥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좌봉 산둥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한봉 산둥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이경사 산둥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 양연용 산둥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전임연구원, 공유선 산둥대학교 동북아대학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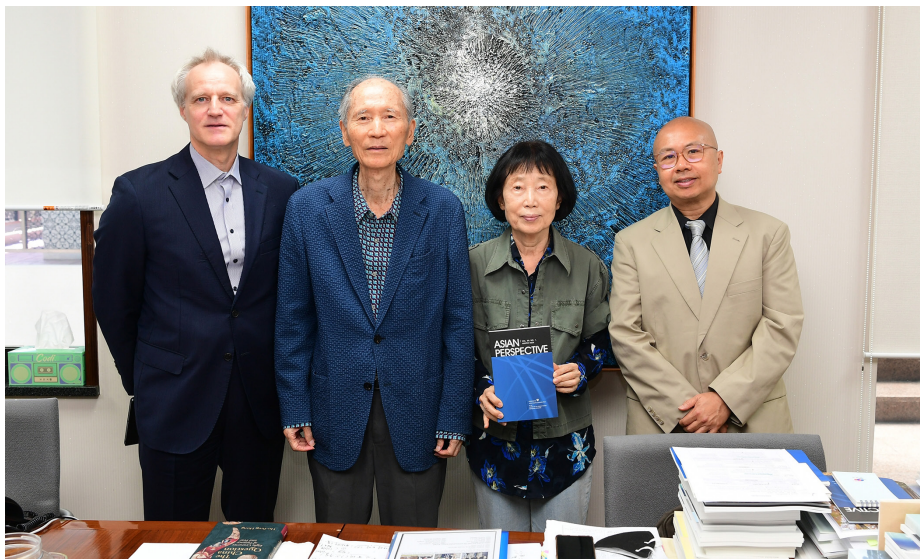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 연구 및 학술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연구진과 대학원생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한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한반도 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이 협력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모두 해당 연구가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북아 지역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다. 호평 형 AP 편집위원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내방

(2026. 5. 22.)

호평 형(Ho-Fung Hung)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가 2026년 5월 22일(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를 방문했다. 호평 형 박사는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아시안 퍼스펙티브(Asian Perspective, 이하 AP)'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학술지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 언론 속의 IFES

이날 형 박사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을 예방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AP가 거둔 그간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국제 학계 내에서 높아진 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형 박사는 올해로 AP가 발간 50주년(통권 50호)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난 반세기의 성취를 바탕으로 향후 50년 역시 글로벌 학술 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예방 직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는 형 박사와 더불어 AP 주간 편집자인 딘 올렛(Dean Ouellette) 교수, 그리고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진이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학술지를 통한 지식 공유 및 연구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고견을 나누었다.

한편, 1977년 창간된 ‘Asian Perspective’는 아시아 지역의 정세와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세계적인 권위의 SSCI급 국제 학술지다.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출판부가 공동 발간하며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학술적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

2. 언론 속의 IFES

가. 경남대 박재규 총장, 중국 산둥대 방문 - 한반도 문제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확대 합의 (2026. 4. 21.)

연합뉴스, 뉴스1, 서울신문,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등 20개 국내 언론사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2026년 4월 21일(화) 중국 산둥대를 방문해 학술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박재규 경남대 총장, 중국 산둥대 방문…한반도 문제 학술 협력”



<(왼쪽부터)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구도빈 산둥대 위해캠퍼스 당서기, 장운령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대학교는 박재규 총장 등이 지난 21일 중국 산둥대학교 위해캠퍼스를 방문해 학술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박 총장을 비롯해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등이 동행했다. 경남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대학이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학술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구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나. [개교 80주년 맞은 경남대] 지역과 함께 성장한 ‘명문 사학’… AI 혁신 대학 발돋움 (2026. 5. 19.)

경남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등 9개 국내 언론사는 경남대학교 개교 80주년을 맞아 박재규 총장의 AI 혁신 대학 도약 구상과 SW중심대학·피지컬 AI·RISE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 성과를 2026년 5월 19일(화)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AI 시대 대학 역할 고민… 세계와 연결되는 100년 학교 만들 것”



(창원=경남신문) 조고운 기자 = 개교 80주년을 맞은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은 AI 기술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의 역할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총장은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되어 한다”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미래 100년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3. IFES 도서관

가. 신착 및 기증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4월 ~ 5월 중 중 신착 및 기증 도서 45권을 입수하였다.

< 신착 및 기증 도서 대표 목록 10권 >

No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글로벌 사우스: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2026
2	제5차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K-평화통일연대	K-평화통일연대	2025
3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으로 푸는 인간 본성 진화의 수수께끼	최정규	뿌리와이파리	2009
4	통일 의료 2.0: 남북한 보건으로 협력과 통합	문진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6
5	2026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 평가세미나	한반도평화외교 자문위원회	한반도평화외교 자문위원회	2026
6	중국경제 중장기 성장 전망과 성장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문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7	북한문화, 닦은 듯 낯선 모습	임채욱	JMG	2023
8	2025 중국정세보고 = China report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 소 중국연구센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2026
9	2026 북한민 정찰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자립지원과	통일부	2025
10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통일부	통일부	2026

나.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4월 ~ 5월 중 개방서가 운영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105권, 도서 나눔 97권

4. 예정사항

가. 제20차 삼청포럼

- 일시/장소: 2026. 6. 9.(화), 19:0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주제: 해양 신냉전 - 아시아-태평양 해양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

나. Peace Forum 2026

- 일시/장소: 2026. 6. 11.(목) ~ 13(토) / 일본 소카대

다. GKF 2026

- 일시/장소: 2026. 6. 23.(월) 10:0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제: 북중러 삼각관계와 한반도 평화공존

5. 안내사항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50,000원/일반회원: 70,000원/기관회원:13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북한자료 열람 가능)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